



정읍시, '어르신과 함께하는 어린이예술제' 개최

아이들의 양증맞은 춤사위에 어르신들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피어났다.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제5회 어르신과 함께하는 어린이예술제'가 21일 정읍 수상동 근린공원에서 열려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정읍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복희)가 주최한 이번 예술제는 지역사회 영유아 공연문화를 정착시키고 세대 간 어울림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이학수 시장·박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어르신·어린이·어린이집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동화나라어린이집의 고운 부채춤 공연으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이어 키즈레일정읍어린이집(댄스), 예본어린이집(마리카스), 근로복지공단정읍어린이집(댄스), 해맑은어린이집(댄스), 사뽀어린이집(장구), 꼬마마을어린이집(댄스), 신태원원광어린이집(장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관람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아이들은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갖고있던 춤과 연주·율동 실력을 마음껏 선보였다. 어르신들은 공연 내내 따뜻한 박수와 격려로 화답하며 세대가 한데 어우러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용

전북대 분자생물학과를 졸업한 조별희 박사가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임용됐다.

21일 전북대에 따르면 조별희 박사는 2012년 전북대학교 분자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 생리활성소재과학과에서 2024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전북대 물질에너지기초과학연구소에서 LAMP 포닥으로 활동하며, 'Siglec-F와 ligand의 상호작용을 통해 면역세포에서 면역반응을 조절해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작'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 5년간 3편의 SCIE급 논문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별희 박사는 "전북대 G-랩프사업단의 펠로우십 지원을 통해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G-랩프(LAMP)사업으로 박사후연구원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조별희 박사

장수경찰서,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21일 경찰서장, 각과장 및 직원 및 경찰발전협의회장, 지방연합대장 등 협력단체장을 비롯한 감사장 수여 대상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총혼담(장수읍 소재)에서 순직경찰관 참배를 한 후, 경찰서 강당에서 홍보 영상물 시청, 유공자 포상, 대통령 축하 대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기념행사에서 청문감사계장 박재성 경감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찰관 27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경찰발전협의회 이등공씨 등 총 20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민·관·기업 손잡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 나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본부 · 코어 · 전북자봉센터,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21일 센터 교육장에서 지역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본부, (주)코어 등과 업무협약 및 건강 배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상호 협력해 도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높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식에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명규 회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본부 김성권 본부장, (주)코어 배종문 대표,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인적·물적 자원 공유 △프로젝트 개발 및 수요처 연계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주)코어는 이날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약 600만원 상당의 건강 배개 100개를 기부했다. 이 물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되어 자원봉사센터를 거쳐 도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배종문 (주)코어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건강 배개가 이웃들에게 편안한 잠과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본부장은 "소상공인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눔과 봉사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공공기관과 기업,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하게 되어 뜻깊다"며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전달될 수 있도록 공동모금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자봉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도민과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중산신협 전호진 전무, '제80회 경찰의 날' 감사장 수상

금융사기 예방·고령층 금융교육 공로 인정

전주중산신협은 '제80회 경찰의 날'을 맞아 전호진 전무가 범죄 예방과 금융안전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유오재)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전 전무는 2020년부터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 금융안전망 구축에 힘써왔다. 특히 같은 해 한 고령 조합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뻔한 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이 단순한 예금·대출 창구를 넘어 주민들의 경제적 보호막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

이후 그는 직접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완산경찰서와 협력해 '찾아가는 금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전주중산신협은 이를 통해 태평동분점, 중화산지점, 효천지점별 담당 구역을 나눠 매 분기 1회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정례화했다.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 노년층이나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주민을 대상으로 1:1 금융상담을 실시하고, 교육 이후에도 지점별로 사후 관리를 이어가는 등 세심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삼근 기자

전 전무는 전주시 일대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문자스미싱 유형, 의심 거래 대처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정읍 '똑똑한 달빛장터 · 슈퍼푸드 페스티벌' 순항

지난 주말, 정읍역 광장이 맛있는 먹거리와 흥겨운 음악, 시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올해 처음 선보인 '똑똑한 달빛장터와 함께하는 정읍 슈퍼푸드 페스티벌'이 첫 개최부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정읍역 광장을 새로운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정읍시와 정읍시지역활력센터 주관으로 지난 18일과 19일 열린 1·2회차 행사에는 총 13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가을 관광 시즌을 맞아 처음 선보인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9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총 8회에 걸쳐 정읍역 광장에서 펼쳐진다.

마을기업·사회적기업·공동체 등 25개 팀이 참여한 장터에서는 신선한 농산물과 전통 장류, 수공예품 등 정읍의 특색 있는 상품들이 판매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구절초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정읍의 우수 먹거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노암동, 한부모가구 1세대에 난방유 지원

남원시 노암동은 HD현대1%나눔재단과 한국에너지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5년 사람의 난방유 사업을 통해 지역내 한부모가구 1세대에 HD현대오일뱅크 주유상품권 30만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상지는 노암동의 '1일1가구 소통행진'을 통해 발굴된 에너지 취약계층이며, 그간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아왔으나 자녀의 연령 초과로 지원이 중단되면서 난방비 부담을 겪고 있던 가구로, 차미와 노암동장은 상황을 파악한 후 해당 민간 자원을 즉시 연계, 겨울철을 앞두고 필요한 난방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었다.

한편 차미와 노암동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에너지 복지향상과 따뜻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백운농협,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성료

진안군과 백운농협은 21일 백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백운면과 성수면 지역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 3차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협중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각 지역 농협이 주관해 추진됐다. 검진 대상은 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 농업인 등 지역 주민이며, 진료과목은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의 한방진료, 아이오바이오 치과전문기업의 구강검사, 더스토리안경원의 시력 측정과 돋보기 지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진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했다. 진안군과 지역 농협은 앞으로도 협력해 주민들의 의료 복지 향상에 힘을 계속 기울인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